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 잠언 26:16 Ted Hildebrandt와  
Chatgpt 의 속담 이야기**

아래 들판이 뜨겁게 달궈지고 농부들이 새벽과 함께 일어나는 엠버 베일의 뜨거운 태양 아래 , 그곳에는 '슬리피 조 브램'이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계곡 전역에서 고된 노동이나 근면함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잠만 자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말로 유명했습니다.

졸린 조는 게으른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을 굽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동안, 졸린 조는 게으름에 폭 빠져 그루터기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게으른 방식이 왜 최선인지 설명했습니다.

"힘을 낭비하는군." 그는 마치 와인 시음회라도 하듯 위풍당당하게 잔을 흔들며 말했다. "자연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지. 땅이 밀을 키우고 싶어 하면 자연은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땅을 파느라 허리를 다쳐야 하지?"

마을 사람들은 눈을 굴렸지만 거의 반박하지 않았다. 젊은 게으름뱅이는 모든 것에,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에, 반박은 무의미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오만하고 거만하게 일축했다.

어느 해, 가뭄이 닥쳤습니다. 강물은 리본처럼 쪼그라들었고, 땅은 낡은 콘크리트처럼 갈라졌습니다. 농부들은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모여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빌과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일곱 명, 나이 들고 풍파를 겪었지만 고요한 지혜로 가득 찬 이들은 서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더

깊은 우물을 파고, 개울을 독으로 막고, 관개용 도랑을 다시 준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졸린 조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너희들은 뻔한 걸 간과하고 있군." 그가 그들을 꾸짖었다. "공황에 빠질 필요 없어. 가뭄은 지나가니까. 그냥 기다려. 비는 언제나처럼 다시 올 거야. 땅을 쉬게 해 줘.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잖아. 왜 패배하는 시즌에 그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지?" 마을의 게으른 남자가 거만하게 수사적으로 물었다.

장로 중 한 명인 빌이라는 남자가 메모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뭘 먹을 건가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쉼 새 없이,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관개수로로 다시 파고 우물을 더 깊이 팠다.

졸린 조가 반항적으로 자랑했다. "땅이 모든 걸 해결해 줬어. 항상 그래 왔지. 내 정원은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정원은 괜찮지 않았다. 한여름이 되자 농작물은 시들어 버렸다. 식량은 고사하고 없었다. 주변 들판을 바라보니 불안하기만 했다. 그의 정원은 바싹 말라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이웃들의 밭은 작지만 여전히 푸르렀다. 관개용 배수로는 햇살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겸손해진 졸린 조는 플라타너스 나무 옆 우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빌은 그에게 마실 물을 떠 주고는 나무 옆 우물을 파느라 지친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기적을 기다리거나 쓸데없는 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졸린 조는 자신이 조롱했던 사람들의 자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는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해가 뜨자, 그는 갈퀴와 삽을 손에 들고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엠버베일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고, 지혜는 때때로 모든 것을 안다는 주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계획에 따른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린 조는 마침내 오래된 속담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잠언 26:16)